

철학사

52 칸트의 인식론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임마누엘 칸트 공부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순전히 입문 수준이었죠. 그의 기획과 몇 가지 용어를 이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때 다른 내용은 카우프만 판본에 있는 『순수이성비판』 발췌본의 앞부분 10페이지 정도였습니다 .

읽으시면서 유사점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굳이 그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오늘은 그의 인식론, 즉 그의 지식 이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는 그가 비판서에서 '초월적 미학' 과 '초월적 분석' 이라고 명명한 두 부분으로 나눌 것입니다.

미학은 감각 지각과 관련이 있고, 분석학은 이해와 관련이 있다.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된 개념 때문이다. 또한, 명확한 지각적 관념, 감각 지각,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명확하고 구별되는 관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선형적인 지각 구조 때문 이다.

그러니 그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초월적 분석철학에서 이해를 다룰 때는 사고 능력을 다루는 것이지 감각 능력을 다루는 것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만으로도 두 개념을 구분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칸트의 요점은 우리가 자연 세계나 자아에 대해, 심지어 신에 대해 일반화하거나 추상적인 용어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이해에 앞서 감각 기관의 입력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지각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지각은 맹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개념이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관념입니다. 우리는 로크, 버클리, 힐로부터 인과관계, 실체와 같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관념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들, 즉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들은 공허하며, 지각, 다시 말해 특정한 감각 지각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개념이 없는 지각은 맹목적입니다. 의미가 없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각 능력과 사고 능력을 구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감각 표상과 추상적 관념을

구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감각 표상이 추상적 관념을 발달시키는 데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인식 해야 합니다 .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에 적어 놓은 용어들을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특히 어려운 부분에서 이 용어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보셨다면 곧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산(安山)이라는 용어는 문자 그대로 '통찰력'을 의미하는데, 보통 직관으로 번역되며, 여기서 직관은 곧 자각을 뜻합니다.

이후의 전통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관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직관은 관념이나 감각 지각에 관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안산, 직관. 이 용어는 비평 전반에 걸쳐 사용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을 염두에 두세요. 그것은 인식하고 의식하는 정신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정신적 행위 말입니다.

이는 존 로크가 관념이라고 불렀던 정신적 내용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관념이란 외부의 어떤 것에 대한 표상입니다. 또한 행위와 내용은 감각 능력, 즉 우리가 감각 할 수 있는 능력과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

비슷한 연. 교수진. 감수성이라고 번역되는데, 우리가 'sensi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고려하면 그다지 좋은 영어 표현은 아닙니다.

그 용어는 '합리적'이라는 의미에서 그다지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용어가 모두 미학, 즉 초월적인 미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독일어에서, 아니 대부분의 유럽에서 '미학'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감각 경험을 가리키는 것이지, 우리가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예술적이거나 아름다운 미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어 동사의 문자적 의미는, 당시 그리스인들이 알고 있듯이 '인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의미를 나중에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초월적 미학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예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초월적 분석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베르스탄트(Verstand)'는 이해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교수진에 대한 언급. 사고. 그리고 개념 , 추상적인 생각.

네, 이 용어들을 기억해 두세요. 이제 칠판에 있는 다음 부분을 보시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우리는 이 평가 기준표에 익숙합니다.

데카르트 이후로, 인간의 마음은 자신의 관념을 즉시 인식하는데, 이 관념들은 단순히 외부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표상이거나, 혹은 그렇게 보이려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데카르트, 로크, 버클리 모두 이러한 틀에서 출발했습니다.

흠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죠. 하지만 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칸트는 자신이 자라온 합리주의 전통의 일부였던 이 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볼프 바움가르트너를 비롯한 독일의 라이프니츠 이후 합리주의자들을 기억하시죠? 그는 그런 전통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흠의 전통 또한 그를 독단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자체가 그러한 전통 안에서 비롯된 프로젝트인 거죠. 그가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말하자면 그 틀 안에서 제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인과관계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경험주의자인 흠은 그것이 선형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인과관계나 인과필연성에 대한 개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끊임없는 연관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것을 칸트가 하는 말로 바꿔 설명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감각 지각이라는 의미의 관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칸트에 따르면 사물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가공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감각 자극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즉 인지 능력이 이 자극에 부여하는 형태가 있다. 다시 말해, 감각 지각에 있어서 마음이 백지 상태, 즉 타블라 라사(tabula rasa)와 같다는 존 로크의 주장은 틀렸다. 플라톤이 말했듯이 우리에게 선천적인 관념이 있거나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명한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감각을 처리하도록 미리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백지 상태나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은 밀랍 덩어리 같은 것에 비유하기보다는, 바이올린에 꼭 맞게 제작된 바이올린 케이스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가공되지 않은 감각 정보가 흘러들어 모양이 잡히고

형태가 갖춰진 얼음 트레이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갖는 지각 경험, 즉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통합된 형태로 형성된, 구조화된 감각 경험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는지 주목해 보세요. 우리의 감각 지각은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흡에 따르면, 우리는 단순한 인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삐.

삐. 삐. 둘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도 없고, 관계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원자론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세 번의 신호음이 빠르게 재생될 때 하나로 인식될까요? 신호음. 자, 그럼 A에서 Z까지 어떻게 갈까요?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각의 생리학적 기전은 감각기관에 가해지는 원자론적 자극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각 인상의 원자론적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관성, 통일성, 구조 또는 질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다섯 가지 서로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흡의 전통에서는 감각 간의 명확한 관계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니다. 눈과 귀, 코와 맛 사이에도 정해진 관계가 없죠. 그런데도 어찌 된 영문인지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오감이 동시에 자극됩니다.

색깔. 냄새. 그리고 맛볼 때 느껴지는 질감.

지글지글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준비되셨나요? 우리가 가진 것은 바로 통합된 감각 경험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가 공통 감각, 즉 오감을 아우르는 감각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칸트도 어찌 보면 비슷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감각 경험, 즉 감각 지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의 응집력, 통합력, 상호 연관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경험적 입력이 원자론적이고, 폭격과 같고, 웅웅거리고 혼란스러운 소리가 모든 감각을 강타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어떻게든 이 정보는 정리되고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각 기관은 일종의 구조, 즉 필터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떤 비유를 쓰든 상관없습니니다. 이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지각은 지각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지각 경험에서 어떻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관념, 즉 이해력이 작용하는 개념으로 나아가는 걸까요? 그는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즉 마음의 성향에 맞춰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흄이 마음의 성향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스코틀랜드 실재론자들이 말하는 마음의 성향 말입니다.

칸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지각 경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개념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 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통해 지각 경험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판단, 다양한 범주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과적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네. 양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죠. 모든 게 다 이런지, 아니면 일부만 그런지 같은 걸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개념화하고 분류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범주는 경험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험 자체에서 범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범주라는 개념이 새롭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고의 범주를 열 가지로 구분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실체, 속성 등.

존재의 열 가지 범주. 서로 상응한다. 범주는 간단히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마음은 단순히 무작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경로를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경로를 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뉴턴의 물리학 세계만이 질서정연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 세계 또한 질서정연합니다. 사실 칸트는 이러한 범주들이 실제로는 뉴턴의 범주라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질서를 정신 세계로 옮겨놓았습니다.

뉴턴의 개념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뉴턴 우주의 구조는 우리가 부여한 구조일 뿐입니다. 우주 자체가 원래 그런 모습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런 식으로 구조화했습니다. 공간, 시간, 인과관계, 물질, 실체와 같은 범주로 세상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데카르트적 틀을 바탕으로 작업하지만, 로크처럼 마음이 모든 과정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라고 봅니다. 마음은 경험과 사고를 구조화하고, 의미 있는 세계를 스스로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생각하는 순간, 적어도 우리에게서 의미는 생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가능한 것입니다.

과학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즉 현상 세계입니다. 반드시 본질적인 세계, 즉 예지 세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이 새로운 단계를 지난 금요일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말씀해 주세요.

라이언?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범주들, 즉 뉴턴적 관점을 통해 감각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류해 온 그 범주들이 보편적이라거나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네. 생물학적이든 문화적이든 간에 관여할 수 있는 방식이 있죠. 음, 그가 말하는 선형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형태와 범주들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있어 선형적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들은 단순히 문화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보편적이며, 필수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달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일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보는 이유가 설명되는 겁니다. 네.

개인 경험의 차이는 우리 모두가 공간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과적 범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흠도 피할 수 없었잖아요? 결국 이렇게 됐네요. 피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데이비드?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 질서의 본질 때문에 범주가 생겨난다고 말했죠. 범주는 실제로 자연 속에 존재하니까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칸트에게 범주는 단순히 사유의 범주인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범주는 사유의 범주일 뿐만 아니라 현실의 범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중세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인식론적 문제에 거의 부딪히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사유의 범주가 현실의 구조와 일치한다면, 이성적인 것은 곧 실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재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 당신은 그 점을 확실히 알고 있다. 칸트는 우리의 범주가 현실의 범주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알 길이 없다고 말해요. 아무도 없는 숲에서 나무가 쓰러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버클리 사건과 같은 맥락이죠. 어떻게 알겠어요? 에스더?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뜻이네요. 네, 그럼... 네. 네.

그렇다면 칸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 같습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이론이니까요. 로바체프스키 기하학, 리만 기하학 등이 있는데, 유클리드 기하학과 다른 점은 다섯 번째 공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클리드의 다섯 번째 공리, 평행한 직선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평행한 직선이 수렴하거나 발산합니다. 그 결과, 유클리드 기하학과는 전혀 다른, 광활한 우주 공간을 다룰 때 훨씬 유용한 여러 가지 특이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공간의 곡률을 다룰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죠.

네. 데카르트의 철학적 방법론은 당연히 유클리드 기하학의 방법론이었죠. 뉴턴의 물리학도 유클리드 기하학을 활용했고요.

광학은 유럽 대륙 물리학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데카르트가 광학 분야에서 연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는 생계를 위해 렌즈를 가공하는 일을 하면서 기하학의 방법론을 철학에 적용했습니다.

글쎄, 놀랍다는 말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는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 그 차이는 사소한 거죠."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범주 체계를 약간 다듬어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실체, 원인, 결과와 같은 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둘째로, 칸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감각 지각의 두 가지 형태가 공간과 시간이라는 제 주장을 수정 해야겠네요 . 기하학은 공간을 다루니까요."

그것은 공간에 관한 과학입니다. 만약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유클리드 기하학과 다른 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공간에 대한 보편적 범주, 즉 보편적 개념이 존재한다는 그의 주장은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칸트주의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각, 공간, 시간의 선형적 형식에 대해 덜 생각하고, 단순히 이해의 선형적 범주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공간과 시간의 형식은 어쩌면 학습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19세기에 신칸트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19세기 후반에 부활하여 20세기 초까지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후대의 신칸트주의 사상, 즉 실존주의가 거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후기 신칸트주의자들은 이러한 범주들을 학습된 것, 문화적으로 습득된 것, 전승된 것, 경험의 과정 에서 학습되고 변화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문화적 측면에서 막스 베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 사고 구조의 상대화 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해되시죠 ? 그리고 이는 과학에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유지하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범주들이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면, 그 범주들과 일치하는 객관적인 기준점을 찾는 데 훨씬 더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신칸트주의 운동은 선형적 틀을 상대화했고, 이것이 문화 상대주의, 즉 지식뿐 아니라 진리의 개념 자체를 상대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시 겠죠? 그리고 20세기에 등장한 다양한 주관주의, 그중 하나가 실존주의였죠. 그러니 이 점을 명심하세요.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칸트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칸트는 인간의 주관성과 우리가 경험에 적용하는 창조적 자원에 중점을 두면서 '상상력'이라는 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칸트가 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력. 그것은 콜리지와 초기 낭만주의 시인들에게 예술적 표현, 즉 상상력을 통한 자기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낭만주의는 칸트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는데, 칸트는 우리 내면의 창의성, 즉 내면의 창조적 자원을 강조했습니다. 예술에 적용되는 심리학에서 보편적 상징, 보편 상징주의, 심층 심리학과 같은 개념을 접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칸트의 영향입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심층심리학, 특히 프로이트와 융의 심리학. 간접적으로는 칸트의 영향도 있다. 특정한 주관적 영향들이 우리의 행동과 사고를 형성한다.

두고 보면 알 거야. 독일 민족주의는 악이야.

18세기의 개인주의를 넘어 19세기의 공동체적 정체성으로 나아가면서, 그 공동체적 정체성의 내면에는 칸트 철학의 창조적 힘이 폭발적으로 분출되었습니다. 19세기 민족주의는 칸트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았으며, 이는 낭만주의가 국가적 차원에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낭만적인 관점. 명백한 운명론과 같은 것들. 19세기 낭만주의

독일 관념론. 헤겔 등을 비롯한 사상가들. 궁극적으로 마음의 진정한 본질은 창조적 사고이다.

정말 그 생각을 이해하시나요? 칸트. 실존주의. 네, 우리는 무의미한 사실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사르트르에 따르면 우리 스스로 의미와 가치,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르트르를 읽다 보면 칸트의 희미한 메아리가 들려오는데, 그 때문에 칸트는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뭐, 그런 식이죠. 아니면 오늘날의 포스트모더니즘 운동으로 넘어가 볼 수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주관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객관적인 지식은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석학 운동, 정치적 올바름 운동 등이 그 예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든 것은 주관적인 영향, 주관적인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칸트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불쌍한 칸트, 그는 그 말의 절반도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저지른 악은 그들이 죽은 후에도 남습니다. 선행 또한 그들의 뼈와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칸트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칸트에 대해 일찍이,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데이비드? 글썄요, '객관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따라 다르죠. '객관적'이라는 단어는 '주관적'이라는 단어처럼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버클리에서처럼, 주관적인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칸트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관적인 것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객관적인 것은 어떤 마음, 어떤 인식자, 어떤 의식과도 독립적인 것입니다. 칸트에게 있어 이것들은 주관적인 것이며 객관적인 특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형이상학적 주관성, 형이상학적 객관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주관성과 객관성의 또 다른 의미는 태도에 더 가깝습니다.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느냐?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객관적인 입장은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입니다.

관찰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시험지를 채점할 때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칸트와 저에 대해 온갖 험담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입장은 감정적으로 개입하는 입장입니다.

나는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키르케고르적인 주관성의 의미이다. 키르케고르가 주관적인 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열정, 즉 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키르케고르는 기독교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은 주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과 사랑, 희망이라는 열정 없이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의도로 오시는 건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태도적인 의미와 형이상학적인 의미,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보세요. 에스더? 네. 칸트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네.

음, 그것들은 우리의 지각과 사고방식에 내재된 구조라는 점에서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이죠. 굳이 개념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기능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무관하게 이미 알고 생각하는 선천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라톤의 변증법적 원리에 따라 되살아나는 명확하고 뚜렷한 선천적 관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숙고를 통해 자명해지는 명확하고 뚜렷한 관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작동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변증법을 통해 내면 성찰만으로는 이러한 것들에 도달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초월적인 방법으로요. 초월적인 방법 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초월적인 방법이란 게 뭐냐고요? 바로 초월적인 자아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초월적 자아. 그가 말하는 초월적이란 무엇일까요? 초월적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는 초월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끔씩 두 단어를 혼동하기도 하는데, 적어도 번역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가 말하는 '초월적'이란 '초월적인'을 의미합니다. 즉, 경험에 대한 창조적이고 주관적인 기여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적 세부 사항을 제쳐두고 무엇이 남는지 묻는 시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표정을 보니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본문을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니 밑줄을 그어 주세요. 이 방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니까요.

우선 372페이지, 첫 번째 열 맨 위를 보세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지식이 뒤섞여 있는데, 이는 분명 선천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감각에 속하는 모든 것, 즉 개별적인 것들을 경험에서 제거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원적인 개념들과 그 개념들로부터 파생된 판단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것들은 모든 경험과 독립적으로, 전적으로 선천적으로 기원한 것들일 것입니다. 이제 이 점을 명심하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375번을 보십시오. 새 단락의 두 번째 열, 375번을

저는 초월적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식은 대상 자체보다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선험적 개념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러한 주관적 구조를 부여하는 선험적 틀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이러한 개념 체계를 초월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작업이 되겠네요.

그리고 376쪽을 보면, 제2부의 제목이 '초월철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것이 순수이성에 대한 비판적 발상이며, 고정된 원칙에 따라 지식 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의 완전성과 확실성을 보장하는 계획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선험적 구조, 즉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 주관적인 청사진에 도달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초월주의의 요소에 이르면, 초월적 미학은 그것을 적용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377페이지에서 언급했던 초기 정의들 이후, 첫 번째 열 맨 아래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 즉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을 저는 그것의 감각, 감각 자극, 즉 물질 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현상의 다양한 물질이 특정한 질서로 배열된 것으로 인식되게 하는 것을 저는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형식과 물질이죠. 그는 이런 용어들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아마도 다른 의미의 미학에서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미학에서는 때때로 그림을 그 물질과 형식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곤 하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엔 그건 정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 사물이 형상과 물질을 가진다고, 즉 물리적 개별 사물에 대해 이야기했죠. 칸트는 물리적 개별 사물이 형상과 물질을 가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현상, 개별적인 경험이 형상과 물질을 가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 입력, 그것이 핵심이고, 주제이며, 여기 형식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형식과 내용입니다. 이제 그가 하려는 것은 경험의 내용, 즉 본질을 제쳐두고,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사과 파이든, 자두 파이이든, 건포도 파이든, 아니면 그냥 마른 빵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구조는 무엇일까요? 알겠어요? 특정한 색깔, 특정한 모양, 특정한 냄새 등은 잊어버리세요.

구조가 뭐죠? 경험의 구조요. 지각 경험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 그는 그 구조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 377페이지 맨 아래, 두 번째 열, 아니 정확히는 열의 중간쯤에 있는 두 번째 열을 보세요.

표상, 즉 형상 에서 , 그리고 당신도 표상, 즉 형상에서 이해 의 사유에 속하는 것, 실체, 힘, 분할 가능성을 연역한다면, 여전히 경험적 직관, 즉 고대 의 경험적 직관, 다시 말해 연장 과 형상 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 이것들은 특정한 형상이 무엇이든 간에 선형적으로 순수 직관에 속합니다 .

크기는 얼마나 큰가? 크기는 얼마나 작은가? 모양은 무엇인가? 그것들 모두 공통적으로 공간적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2차원, 3차원, 공간적 확장성. 따라서 감각이나 감각의 실제 대상 없이 순수한 직관이 존재하는 것이지, 혼합된 직관이 아니다. 선형적인 순수한 직관이 존재하는 것이다.

순수한 직관은 감각의 한 형태로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는 이러한 모든 원리에 대한 학문을 초월적 미학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초월적 미학의 최상단(378쪽)에서 우리는 먼저 감각을 이해력으로부터 분리하여 감각을 분리해야 하고, 그 다음 감각에 속하는 모든 것을 분리하여 순수한 직관, 즉 현상의 순수한 형식만 남겨야 합니다.

감각이 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리고 감각적 직관에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두 가지 순수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턴에게 공간과 시간은 객관적 실재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칸트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주관적인 감각의 형식, 즉 감각 인식의 형식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는 사물의 시공간적 구조를 주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내용을 미리 살펴보는 각주를 하나 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에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

그가 자유와 결정론을 다룰 때 말이죠. 시공간의 인과 메커니즘으로 설명되는 뉴턴 의 세계에서 어떻게 자유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의 자유, 의지의 자유. 간단하죠.

시공간 구조가 주관적인 것이라면,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자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현상과 본질, 외관과 실체를 구분하는 것은 그에게 진정한 의지의 자유, 진정한 객관적 도덕적 의무, 그리고 진정한 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주관적이지 않았다면 이는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네, 그는 독일 경건주의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도덕률, 자유, 도덕적 책임, 그리고 신성한 도덕률 제정자와 같은 것들에 대한 관심은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뉴턴 역학적 우주관 안에 그러한 것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시공간 세계 속의 물질적 인과 메커니즘에 모든 것을 가두어 놓는 뉴턴 역학적 우주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가 물리적 원인의 세계, 즉 시공간적 본성이 우리가 경험에 부여하는 주관적 구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나머지 모든 것도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순수이성비판의 결론은 다른 것들을 믿을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머지 두 비판서인 실천이성비판과 판단력비판에서 그는 이러한 다른 것들을 주장해 나갑니다.

자, 초월적 방법이라고 하죠. 에스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명해 보이시는데, 일단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자, 그가 주장하는 바를 확실히 정리해 보자면, 공간과 시간은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 생각에는 이런 내용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을 뉴턴 역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고, 최신 물리학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공간과 시간이 단순히 관계의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무한히 펼쳐진 텅 빈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공간에 대해 의미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리적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들 사이에 공간적 관계라고 부르는 어떤 관계가 존재할 때입니다. 공간은 그러한 모든 가능한 관계를 지칭하는 추상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알겠어요? 시간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고무줄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알겠어요? 시간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이해 되시죠? 네,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묘한지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요. 시간은 질질 끌 수도 있고, 철학 수업에서처럼 유령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멈춰 있을 수도 있죠.

알겠어요? 네. 고정된 시간 영역 같은 건 없어요. 버클리가 경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알겠어요? 자, 이제 칸트는 그 점을 이어받아서, 공간과 시간이 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가 경험을 조직하는 데 사용하는 주관적인 구조일 뿐이라고요.

주관적 구조. 우리의 감각 기관은 사물을 순차적으로 경험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삐.

삐. 아시죠? 다음에도 이런 소리가 날 거라고 예상하시잖아요. 삐.

우리는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앞에서 낸 세 번의 삐 소리를 순서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세 번의 삐 소리 후에 제가 또 한 번 삐 소리를 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알겠죠? 하지만 그가 말하는 건 우리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사물을 주관적으로 구조화하는 방식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뉴턴식 시간 개념은 객관적인 대응 개념이 없어요.

공간과 시간 모두. 그리고 그의 작품 속 미학을 읽어보면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378 쪽을 보세요.

두 번째 열. 공간은 외부 경험에서 파생된 경험적 개념이 아니다. 378.

그리고 두 번째 열 맨 아래에 있는 두 번째 항목을 보세요. 공간은 선형적으로 필요한 표상이며, 외부 직관의 바로 그 토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몇 문장 뒤에는 그것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나옵니다.

감각 입력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각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제 조건입니다. 초월적 방법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인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열의 4번을 보세요. 공간은 사물 간의 관계에 대한 담론적이거나 일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화, 즉 경험적 일반화가 아닙니다.

그건 순전히 직관일 뿐이에요. 경험적인 근거는 전혀 없죠.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리는 결론들을 보세요.

두 번째 열. 공간은 그 자체로 사물의 어떤 속성도 나타내지 않는다. 공간은 외부 감각으로 인지되는 모든 현상의 형태일 뿐이다.

우리가 공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의 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주관적인 조건을 배제하면 공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380페이지 첫 번째 열 맨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토론은 우리에게 외부에서 대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공간의 현실성, 즉 객관적 타당성을 가르쳐주지만, 감각과 무관하게 이성으로 그 자체로 고찰되는 사물에 대해서는 공간의 이상성을 가르쳐줍니다. 자, 그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더 명확합니다.

가능한 모든 외부 경험과 관련하여 공간의 경험적 실재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물을 공간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것이 바로 경험적인 것입니다.

경험 속에서 그것은 당신에게 현실입니다. 당신이 사는 세상에서 경험은 공간적입니다. 하지만 세상 그 자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적 현실이죠. 하지만 그는 동시에 초월적 이상성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공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가능한 경험들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물들이 그 자체로 어떤 식으로든 의존하는 대상으로 공간을 받아들인다면, 아니, 공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초월적인 마음이 경험을 하기 위해 갖는 이상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시간에 관해서도 거의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그는 보다 일반적인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384쪽에서 그는 첫 번째 열의 중간쯤에 결론을 내립니다. 시간과 공간은 다양한 선형적 종합적 인식을 도출할 수 있는 두 가지 지식의 원천입니다. 순수 수학은 이에 대한 훌륭한 예를 제공합니다.

왜요? 공간 때문인가요? 네, 바로 그게 기하학의 본질이죠.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과학이에요. 기하학은 둥근 공에 관한 학문이 아니거든요.

이 수업은 원이나 구와 같은 기하학적 도형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칠판에 그리는 아무 선이나 삼각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직선이나 삼각형에 관한 것입니다.

수학적 정의에서 직선은 길이는 있지만 너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경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죠.

점은 위치는 있지만 크기는 없습니다. 기하학에서 점은 실체가 없는 대상입니다. 점, 선, 삼각형, 원, 구는 이상적인 실체, 즉 물리적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과의 대상입니다.

과학이 존재할 수 있겠군요 .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의 수학은요? 네, 수열은 어떻습니까? 수열, 수열 말입니다. 산술은 시간의 수열에 대한 과학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렇다면 수학의 위상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 수학 철학이 여기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은 수학적 대상을 실재하고 객관적인 존재로 보는 수학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등이라는 이상. 같은 길이. 삼각형이라는 개념, 뭐든 간에.

칸트에게 수학적 대상은 객관적 실체가 없다. 그것들은 개념일 뿐이다. 칸트는 개념주의자이다.

플라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실재론자였다. 명목론자는 수학을 자의적으로 정의된 임의적 관념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만 볼 것이다 . 개념론자는 수학을 추상적인 관념들을 다루는 것으로 볼 것이다.

보편적인 개념이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든. 추상적인 개념들. 명목론자들은 이를 단순히 단어의 의미를 다루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수학의 기초에는 세 가지 주요 전통이 존재합니다. 칸트는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 졸업생 중 한 명인 닉 데틀레프슨에게서 책 한 권을 받았는데, 그는 노터데임 대학교에서 수학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의 두 번째 저서입니다. 수학 철학 분야이고, 바로 이런 종류의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뭐, 초월적인 미학에 대해서요. 몇 분 정도 걸렸네요.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